

#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7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10일

발 의 자: 최민규,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도문열,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철성,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윤영희,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승복, 이영실,  
이은림,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60명)

## 1. 주문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뭄, 폭염, 폭설과 집중호우 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강이남 지역에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로 인해(시간당 최대 141.5mm)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지난 8일 중부지역에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정전, 누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와 지하철 역사 침수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
- 이는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 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임.
-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최근 10년간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했으며 평균 기온은 21세기 말이면 5.9° C 이상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는 평균 7.5일에서 32일로 한 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다. 기타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지난 8월 8일 중부지역에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정전, 누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와 지하철 역사 침수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는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 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침수피해 원인분석 결과, 내수 침수의 약 40%가 하수도 시설의 우수 배제기능 미흡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시설 복구는 기능 복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피해 복구지역에서 피해가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최근 10년간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했으며 평균 기온은 21세기 말이면 5.9°C 이상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는 평균 7.5일에서 32일로 한 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2.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